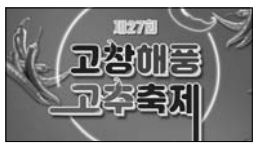


지역 소식통



고창해풍고추축제, 농산물 유통센터서 26~27일 열려

고창군이 오는 26~27일 고창읍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제27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연다.

고창해풍고추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껍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최고의 고추로 명성이 있는 고추다.

축제기간 동안 고창군 관내 고추재배 농가와 단체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한다. 건고추와 고춧가루를 10% 내의 한정 할인 판매해 고품질 고추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정읍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병행 대형마트와 같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11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상품권 앱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단, 농민수당과 안정지원금 등 정책수당 상품권은 사용자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모바일·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29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등재 인증서 전달... 사발통문 퍼포먼스 등 진행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 기념식이 열린다.

정읍시는 오는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과 등재 인증서 전달을 위한 범국민 축하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물은 지난 5월 24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 승인이 결정되면서 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물은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로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민간인이 남긴 문건과 일기, 동학농민혁명 경문 공문서 등 전체 185건(1만 3132면)이다.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곳의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북도와 정읍시가 인증패를 전달받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인증서를 전달받는다. 또 김지수 서예가의 사발통문 퍼포먼스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표현하는 문구를 쓰면 주요 내빈들은 자신의 이름에 손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기념재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2024년 기록물 특별전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해 동학농민혁명정신 세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85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가운데 '사발통문'이 포함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가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지만,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戰)로 표현되는 등 그 가치가 폄하돼 왔다.

그러나 사발통문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 포함되면서 그 가치는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제50회 고창모양성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50회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전통과 역사, 참여형 축제 준비 돌입'

고창군, 제50회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회 구성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제50회 고창모양성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50회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위원으로 꾸려졌다. 고창모양성제의 성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디며 위촉식 등 다양한 축제 관련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고창모양성제를 위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회가 서로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창모양성제가 기존의 축제와 차별화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비롯하여 고창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

로 발돋움할 수 있을 바란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축제에 반영되어 성공적인 축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외침을 막기 위해 호남지역 19개 군·현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총화축성한 읍성으로 이러한 축성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매년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제50회 고창모양성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더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행안부 '고향올래(GO郷 ALL來) 공모' 선정

'청년복합공간 조성' 최종 선정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첫 체류형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사업(고향올래)에 선정됐다. 이로써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정의 핵심사업인 '젊고 활력넘치는 도시 만들기'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렸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郷 ALL來) 공모'에 고창군의 '청년복합공간 조성'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 청년복합공간은 청년층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한다.

고창군은 고창타기널 건물 리모델링해 상인시설과 청년창업오피스 운영, 교육공간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 청년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업무 복합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 인구(한 곳에

주소를 정하고 거주하는)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에는 앞서 선정된 '국토부 고창타기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하드웨어)'과 함께 내부 콘텐츠(청년복합공간)가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됐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유입 등 주거·교통·문화가 어우러진 혁신적인 미래 복합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민방공 대피훈련 대비 사전 현장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방공 대피훈련(23일 오후 2시)을 앞두고 공공용 대피시설(19개소)을 찾아 현장 점검했다.

22일 심덕섭 군수는 고창읍 대피소를 방문해 적치물 방치, 안내·유도 표지판 부착과 훼손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들께서도 평소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공음면·대신면)

으로 선포되어 2023 을지연습이 제외됐다.

다만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은 주민대피훈련과 소방·응급·구조 차량 등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된다.

적 공습상황에 대한 경보발령과 주민대피 훈련이 진행되며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 또는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 △노약자 등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택에서 라디오를 청취

함으로써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차량통제 훈련구역(타미날사거리-군청거리 구간 왕복 약 1.2km)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즉시 경찰 등 교통통제요원의 안내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차내에서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과 민방위 대피소 위치 등의 안전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어플 '안전다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안 무빙' 변산해수욕장 일원서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팝업시네마 '부안 무빙'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늦여름 저녁,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가는 변산해수욕장에서 5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행사로 '시대별 청춘이야기'를 테마로 내건 5편의 영화와 감독 및 배우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

먼저, 25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이준의 감독의 '변산'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는 영화의 배경이자 제목으로도 쓰인 상징적인 장소 변산해수욕장에서 '변산'을 관람하고 이준의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며 영화에 대한 감동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26일 오후 8시에는 '엽기적인 그녀'의 주연 차태현 배우와 객석용 감독이 함께 관객을 만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낼 예정이다. 뒤이어 오후 8시에는 김성수 감독

이 직접 무대에 올라 '태양은 없다'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5시에는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인 영화 '네티즌'의 두 주역 백승환·김종길 배우가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팝업시네마 부안무빙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영화는 배우 이정재 주연의 '젊은 남자'로 배창호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밖에도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 기간동안 변산해수욕장 행사장 일원에 도어가 이능호작가의 공예작품 전시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팝업시네마 부안 무빙 행사에서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의 자연과 5편의 영화를 통해 가장 빛났던 청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희망하며, 가족·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